오동진의 씨네카페

'비열한 거리' 흥행몰이 나선 유 하 감독

"세상은 온통 비열한 거리일 뿐"

'비열한 거리'의 병두(조인성)는 조폭 영화를 만들겠다며 자신을 찾아 온 초등학교 동창 민호(남궁민)에게 진한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한다. "건달 인생이라고 뭐 별 것 있겄냐. 사는 게 다 거기가 거긴 거지." 왜 조폭영화는 유독 호남 지역 캐릭터를 내세운 얘기들이 많을까. 공연히 이상한 지역 감정을 앞세울 필요가 없다. 영화 '비열한 거리'는 호남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호남 특유의 어법으로 이 세상의 아우성을 담으려고 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영화가 갖는 진정성만큼 '비열한 거리'는 지난 주 개봉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60만 가까운 관객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월드컵의 광풍이 불고 있는 시점이다. 극장가는 '포세이돈'이다 '엑스맨'이다 해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기세가 등등해져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정도면 선전에 선전을 거듭한 성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개봉 직후 이 영화를 만든 유하 감독을 만났다.

-또 조폭영화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겠다.

▲글쎄 말이다. 개봉 전에는 약간의 선입견들이 있었던 것 같다. 영화를 보고 나면 그런 얘기들을 안한다. 이건 조폭영화라기보다는 청춘영화에 가깝다. 내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폭력성 자체라기보다는 그 사이의 긴장감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비열한 관계들이었다.

-마틴 스콜세즈 영화의 제목과 같다.

▲원래 제목은 '비루함의 카니발'이었다. 근데 너무 문학적이라는 지적을 들었다. 바꿀 거면, 스콜세즈의 영화에서 제목을 빌려 오고 싶었다. 어떤 면에서는 주제가 상통하는 작품이니까. 상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를 좀 많이 안다는 사람들 얘기고..영화의 느낌을 전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흔히들 조폭영화라지만 '비열한 거리'는 안티 조폭영화다.

▲내가 처음 이 영화를 만들려고 조폭 담당 형사를 만났을 때 처음 들은 얘기가 생각난다. 형사들이 내게 그랬다. 감독님, 또 조폭을 미화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서늘했다. 기존의 조폭영화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니까. 영화 속 조폭들이 멋있고, 의리 있고, 알고 보니 괜찮은 인간들인 것처럼 그려졌다는 얘기니까. 조폭의 세계를 비장미 있고 영웅적으로 그리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가능하면 날 것 그대로, 그래서 아주 야만적인 느낌으로 그리려 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들의 세계보다 이 세상의 폭력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숨겨져 있는, 내재된 폭력이 늘 더 무서운 것이다. 폭력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대한 욕망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폭력적인가는 누가 더 욕망이 강한가로 얘기될 수 있다. 병두의 욕망과 민호의 욕망, 둘 중에서 누가 더 비열한가는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스스로가 가늠할 일이다. 난 어느 한쪽을 더 미화할 생각도, 어느 한 쪽을 더 단죄할 생각도 없었다. 우리 모두 이 천민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껏 욕망을 키우려다 자멸해 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영화 속 인물들도 자멸해 가기는 마찬가지다.

-영화는 비극적이다. 당신은 비관주의자인가?

▲우리 모두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불구인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영화 속에서 병두가 사랑하는 현주란 여자도 처음엔, 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녀 역시 유부남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비껴간 삶을 살아가긴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사실은 그렇다. 꿈은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화전문기자·ohdjin@hotmail.com

새영화

경찰을 인질로 잡은 탈옥수

강적 감독 조민호 | 주연 박중훈, 천정명 등

인생에 의미를 잃어버린 중년 형사와 인생의 의미를 되찾으려는 젊은 탈옥수의 이야기. 전도된 관계만큼 두 사람의 역학 관계도 기존 형사 버디무비와는 궤를 달리한다. 형사가 탈옥수를 좇는 구도 대신 형사가 탈옥수한테 인질로 잡히는 설정으로 돼있다. 닉 놀테, 에디 머피 주연의 할리우드 버디무비 '48시간'을 누아르의 어두운 분위기로 뒤집은 이야기. 박중훈의 노련한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

얼떨결에 살인청부 맡아

럭키 넘버… 감독 폴 맥기건 | 주연 하트넷, 브루스 윌리스 등

폴 맥기건 감독은 낯선 인물처럼 느껴지지만 영화광들에게는 독특한 화법의 영화로 기억에 남아 있는 '케미컬 제너레이션'의 영국 감독이다. 영국 감독답게 앨프레드 히치콕이 그렇게도 즐겨 사용했던 '롱 맨(wrong man)' 이야기 구도로 진행되는 작품이다. 엉뚱한 사람으로 오인받은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청부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영화의 끝에 가보면 그를 둘러싼 여러 상황이 엄청난 반전에 의해 180도 뒤바뀌게 된다. 호화 캐스팅이 돋보이는 작품.

미래의 시간서 온 전화문자

착신아리… 감독 아소 마나부 | 주연 호리키타 마키 등

얼마 안남은 미래의 시간에서 문자가 날라 온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사진이 첨부된 파일까지.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경악하지만,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서슴없이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이를 전송한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본 비디오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영화 '링'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 온 셈이다. 상당히 공포스러울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팝콘을 들고 괴성을 질러가며 '즐길 수' 있는 공포영화다. 이런 류의 영화를 흔히들 '팝콘무비'라고 하는 건 그 때문이다.

네오폴더 사이트

불법다운로드 막을 수 있을까

시네티즌, 네오폴더 등 공유 사이트 12곳 검찰 고발

영화전문 사이트 시네티즌이 백두대간 등 영화사와 DVD 회사 9곳의 위임을 받아 불법 영화파일을 주고받는 파일 공유 서비스업체 12곳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발된 서비스업체는 아이팝, 피디박스, 클럽박스, 파일구리, 네오폴더, 다이하드, 핫디스크 등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영상업계의 최대 현안인 불법다운로드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네티즌은 지난 2월부터 일명 '영파라치'란 이름으로 불법파일 단속을 벌여 온 업체. 그동안은 네티즌 개개인이 파일 공유 서비스업체를 고발하면 이에 대해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다운로드의 확산을 막아 오는데 주력해 왔다.

이번 검찰 고발은 '영파라치' 운동이 보다 제도적, 법적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이번 검찰 고소를 주도한 시네티즌의 이택수 대표는 "지금까지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업로더들의 조직, 곧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는 그야말로 글로벌 조직임을 알 수 있다"면서 "FTP 서버(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서버 : 파일을 업 로드, 다운 로드할 수 있는 서버를 가리킴)를 운영하는 각국의 업로더 조직들은 처음에는 순수한 형태의 카피레프트(CopyLeft)를 표방하면서 자료들을 공유했지만,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카피레프트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업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불법방조가 아니라 아예 불법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이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파일 공유사이트들을 이번 주부터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시네티즌의 조사에 따르면 영화 불법파일의 피해는 올해 현재까지만도 3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영화계는 파일 공유업체들에 대한 이번 검찰 고소의 결과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통해 불법 공유 행태가 사라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in@hotmail.com